

Bernard Lewis, *What Went Wrong: Western Impact and Middle Eastern Respons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이 은 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버나드 루이스의 *What Went Wrong*은 2002년 1월 출판되어 9·11 후의 혼란스러운 공포분위기 속에서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루이스는 물론 9·11을 예견하고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테러리즘과 정치적 이슬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았지만, 사상 최대의 자살 테러의 내습으로 인한 충격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는 절박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때마침 나온 이 책이 그토록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루이스는 한때 세계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이슬람세계가 왜 지금처럼 낙후되었는가를 묻는 의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묻은 것이지만, 미국의 일반 독자 대중은 가장 권위 있다는 이슬람사학자가 쓴 이 책으로부터 이슬람권의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무고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해가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생겼나 하는 의문의 해답을 구하려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지금의 상황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이 보다

* 이 책은 버나드 루이스 저, 서정민 譯, 『무엇이 잘못되었나: 서구와 중동, 그 화합과 충돌의 역사』(나무와 숲, 2002)으로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되었다. 또한 이 책은 2003년 1월 부제를 “The Clash Between Islam and Modernity in the Middle East”라고 바꾸어 펄리퍼백으로 재출간되었다.

잘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맹점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의 상황을 이해하자면 물론 보다 가까운 과거의 현대사가 더욱 중요하다. 피상적으로 다루어졌을 때 자칫하면 긴 역사 속에서 본다는 것은 이슬람권을 먼 옛날부터 별로 변하지 않은 정체한 문명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일쑤이다.

버나드 루이스는 과연 이슬람사/중동사 분야에서 가장 넓은 연구범위를 자랑하는 석학이며, 그는 1937년 약관 21세 때 이슬람 길드와 종교운동에 대한 논문¹⁾을 발표한 이래 많은 주제들에 대해 널리 읽혀지는 일류의 연구성과를 내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수십년 동안 시아파의 이스마일리 교단과 아사신 파(assassins),²⁾ 이슬람권에서의 비무슬림 등 소수자들,³⁾ 오스만 제국의 개혁 운동과 터키 공화국,⁴⁾ 무슬림들의 유럽 인식⁵⁾ 등 이슬람 고전 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 걸친 여러 주제들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가져 왔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 연구는 그를 이슬람사 전반에 걸친 개설서를 쓰는 데 특히 적절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슬람사에 대한 권위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몇 안되는 이슬람사 관계서적 중에서 지금의 이 책 이외에도 세 권이 더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 Bernard Lewis, "The Islamic Guilds,"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8, no. 1, pp. 20-37.

2) 예컨대 *The Origins of Ismailism: a Study of the Background of the Fatimid Caliphate* (Cambridge: W. Heffer, 1940).

3) Bernard Lewis, *The Jews of Isla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비무슬림, 특히 유대인에의 관심은 루이스가 영국출신의 유대인이었고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 건국의 파장을 몸소 느낀 세대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4) Bernard Lewis, *The Emergence of Modern Turkey* (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5) Bernard Lewis, *The Muslim Discovery of Europ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82).

이제 그는 프린스턴 대학을 은퇴한 명예교수로 이미 8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고, 더 이상은 1차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고 자신이 기존에 해 놓은 연구를 기반으로 개설서류의 저작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책은 중동에서 정말로 무엇이 잘못되었나에 대한 이해를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 사실상 중동의 수 많은 전쟁, 혼란한 정치, 부패하거나 왜곡되고 낙후된 경제구조, 사회 내의 가부장적 억압 등의 맞물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버나드 루이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런 의문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는 답을 제공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처럼 단순한 문제의식을 좀 더 지적으로 세련된 추구로 대체시켰어야 한다. 그러나 루이스는 책 전체에서 서구를 멸시하던 이슬람권이, 특히 오스만제국이 17세기 말의 패배 이후 어떤 식으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는지 그런 노력이 어떻게 제한되었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유럽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개방성과 유연성의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근대화의 주요 목표가 군사적인 부분의 강화였음을 주목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과 산업은 유럽을 본받을 만하다고 인식되었지만, 근대성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 특히 비무슬림, 노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의 요구 등은 훨씬 느리게,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졌고 끝내 거부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인정된 군사 부문에서마저도 유럽인들의 군사기술이외에 유럽식 군복, 유럽인 교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근대화와 구별되는 문화적 서구화라는 점에서 반발이 있었으며, 서구식의 음악, 과학, 시간관념도 그다지 잘 이식되지 못했다. 그는 근대화가 중동에서 어떤 부문에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열거한다. 종교와 정치의 미분리, 그에 맞물리는 시민사회의 미숙이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되는데, 터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슬람권 국가들에 있어서 이슬람이 아직도 헌법적 지위를 가져서 정치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또 많은 중동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격리는 사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며 특히 여성의 억압은 대다수의 인구의 가정에서의 기초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슬람교가 최후로 완성된 유일신교라는 자긍심과 그리고 번영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부심 역

시 유럽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태만하게 만들어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늦었고 불충분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끝으로 루이스가 지적하는 이슬람권의 '문제' 중 맨 나중에 지적된 것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자세이다. 이제 서구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일본 및 신흥 공업국들에게마저 멀리 추월당한 현실은 무슬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낙후를 몽골의 지배, 투르크의 지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등 여러 외부적인 요소들에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국주의 지배의 기간은 길지 않았고 50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언급한 후,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예를 들면서 반드시 식민지배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동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을 내부에서 찾는 성숙한 자세야말로 오늘날 중동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향적 자세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무슬림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길고 지엽적인 일화들과 시니컬한 코멘트들로 양념된 본문은 이렇게 간단명료한 결론에 이르는 데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근대성을 더 이상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동의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루이스의 분석은 지나치게 피상적이다. 루이스는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들을 '잘못된' 것들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문제의 의미있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근본적이거나 일반적이고, 겉보기만큼 절대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대화가 요구될 때 이슬람권이 충분히 빨리 효과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위에 열거된 어느 요소도 잘 진행되고 있다가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혹은 변질되었다고 할 만한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그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의 관행들이 계속된 것이지만 근대성이 지배하게 된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갑자기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인 것이 되었을 뿐이다. 그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권의 사회·정치체제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랬을 때, 독자의 머리에 곧바로 떠오르게 되는 의문은 그러면 현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겪고 있는 다중적인 고통, 즉 비민주적인 정부, 왜곡되고 비효율적인 경제, 전근대적인 가족구조와 사회구조 등의 문제들의 근원이 이슬람교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오래된 의문이다. 루이스는 세련되게 중동의 모든 문제들을 이슬람에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답이라고 하면서, 문제는 이슬람에 있다기 보다는 정교 미분리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미분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이슬람 교리와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교 미분리의 책임은 역시 이슬람에 돌아가는 셈이 된다. 지나친 자부심과 자존심이라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마지막으로 완성된 유일신교 이슬람과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두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이슬람교를 지목하지 않아도 이슬람교와 매우 가까이 결부된 특질들과 파생효과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책임론에 가까운 논리가 되며, 일반 대중이 갖는 이슬람의 이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수정해 주는 데 별로 효과가 없다. 사실상, 근대 세계 안에서 이슬람권이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역사에서 유래하는 특별한 문화적 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동 이슬람권의 문제의 한 측면일 뿐이며 모든 것의 원인을 돌릴 수는 없다.

루이스는 또한 무슬림 사회 내지 좁게는 오스만 국가가 전성기 이후 쇠퇴일로를 걸었다고 하는 기존의 정설을 확고하게 지지했었던 사람이다. 그는 “The Ottoman Observers of Ottoman Decline”이라는 논문⁶⁾에서 16세기 말 이후의 많은 오스만인들이 국운의 쇠퇴를 걱정하는 정치론을 저작해 온 것을 근거로 오스만인들 자신이 관찰하고 인정한 것인만큼 오스만 국가의 쇠퇴란 확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랬던 그가 이 책에서는 300년 이상의 오스만제국사 후반부를 단순히 내리막길로만 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최근의 연구 동향을 의식하여 이전과는 다른 논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논리를 볼 때 그는 아직도 쇠퇴론을 완전히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

6) *Islamic Studies*, vol. 1 (1962) pp. 71-87.

는 아직도 서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패배하고, 경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만큼 효과적으로 탈바꿈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며 그 책임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내부자들이 제기하는 쇠퇴론이 갖는 개혁론으로서의 성격과 함의 같은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p. 155, “An argument sometimes adduced is that the cause of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West is not a Middle Eastern decline but a Western upsurge ... But these comparisons do not answer the question; they merely restate it.”) 그는 아직도 중동이 서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패배하고, 경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만큼 효과적으로 탈바꿈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며 그 책임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내부자들이 제기하는 쇠퇴론이 갖는 개혁론으로서의 성격과 함의 같은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슬람권 내지 중동을 이해하는 데 중동이 처해 있던 상황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감정이입을 시도하기보다는 서구의 기준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이슬람권이 왜 낙후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왜 서구와의 관계와 경쟁, 내지 비교라는 맥락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일까. 그는 이슬람권이 기독교권과 천년이 넘는 경쟁을 했다고 보는데, (p. 151) 이것은 그러한 경쟁이 마치 항상적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대립관계였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안을 서술할 때, 이슬람권에 비교하면서 서구를 이야기할 때 매우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지만,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비록 박식할지라도 평면적인 것 이상의 인과관계를 추적하지 않는다. 그는 중동을 확고하게 서구적 기준에서 바라보고 중동의 어떤 문제를 서구에 있던 무엇의 부재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예컨대 이슬람에서 정교분리가 안된 이유는 기독교초기 이래의 성과 속의 분리, 종교 전쟁 등의 부재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은 그가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해 오리엔탈리스트의 태도로 지목되어 오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원인이기도 하다.⁷⁾

7)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pp. 314-321은 버나드 루이스의 학문세계, 현학과 마치 조롱하는 듯한 문체에 대한 신랄한 비

그가 책의 말미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부의 문제에 눈을 돌려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무언지 찾아보라’는 조언은 한편은 지당하면서도, 다른 한편 모욕적이다. 그것은 사실 안으로부터의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처럼 잘라 말하는 셈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근대화 개혁과 이슬람적 모더니즘 등의 내부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 문화를 개조해 보고자 노력했고, 그런 노력들은 왜곡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화를 우선시하는 입장과 이슬람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으로 양극화하면서 좌절되어 왔던 것이다. 루이스는 마치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보면 그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식의 상당히 부담없는 희망론을 펴고 있는데, 그런 가벼운 희망은 대단히 공허하게 들린다. 문제는 이렇게 정신적인 태도만 개조하면 쉽게 풀릴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난 19~20세기의 전체에 걸쳐 누적되어 매우 복잡적으로 얽힌 것이다.

다른 한편, 중동사회 내부의 문제들은 중동인들의 정신자세나, 이슬람교에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상당히 기본적인 제약이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경제의 맥락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예컨대 루이스가 여성해방을 가로막는 사회구조 분석을 결여하고, 중동 국가들이 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제정책과 정치노선에 집착하게 되는지 깊이 파고들지 않는 점은 큰 결함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세사가 R. Stephen Humphreys가 쓴 현대중동론 *Between Memory and Desire: The Middle East in a Troubled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가 훨씬 더 유익하다. 사실상 중동 국가들이 경험해온 인구폭발, 지속적으로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늘어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 그러한 청년인구의 좌절이 가져오는 급진 이데올로기의 부상, 애초부터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1차대전 후 외세에 의해 자

판으로 가득하다. 사이드의 도발적인 비판에 대응하여 루이스는 여러 지면에서 *Orientalism*에 대한 격렬한 반비판을 가했으나, 특히 그의 입장은 B. Lewis, "The Question of Orientalism" *Islam and the Wes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chapter 6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의적으로 그려진 국경선 안에서 통합성을 보장할 수 없었던 국민구성, 취약했던 의회의 전통과 그것을 대체한 군사정부들의 정통성 콤플렉스, 식민지 경제와는 다른 자립 경제에 대한 집념이 가져온 비효율성과 실패, 지나친 국방비 지출로 경제와 교육에의 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은 사실상 더더욱 핵심적인 문제이다. 오히려 중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학자일수록 요구되는 변화의 총체성과 무게를 고려하여 중동의 앞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루이스의 저작이 갖는 유용성이 그래도 있다면, 그것은 중동에 동정적이고 양심적인 대다수의 학자들이 굳이 강조하고 싶어하지 않는 중동 사회의 치부들을 조명함으로써 균형있는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 역할에 있어서도, 루이스는 그다지 진지하게 신뢰받지 못하는데, 특히 그가 친이스라엘적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의 중동 국가들의 역사를 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중동이 쇠퇴하고 침체된 지역이며 근대 서구의 문명에 반대되는 대극적인 어둠의 영역으로 그린다. 무엇이 정말로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서세동점 이전의 이른바 쇠퇴와 침체, 혹은 근대화 과정의 실패 같은 것 이상으로 근대성의 도래 이후 이슬람 사회의 모든 측면이 근대성의 어두운 대극의 그림자로서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것으로만 기형적으로 내몰리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슬람과 민주주의, 이슬람과 시민사회 등이 다양한 형태로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진실로 무슬림들의 의식이 무리없는 정교분리, 여성의 지위 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가려면 무슬림들이 불안감과 고립감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그들이 내부로부터 스스로 변화를 일구어 낼 때까지 간섭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국제환경과 여론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루이스의 책은 그런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루이스는 2001년 9월 초 프린스턴의 Department of Near Eastern Studies의 월레 세미나에서 당시 막 탈고되었던 이 책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슬람권이 서구에 비해 낙후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부로부터의 침체와 불충분한 근대화

노력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요지였다. 원로학자에게 적극적으로 반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장내의 대학원생과 소장학자들의 분위기는 꽤나 불만스럽게 응성거리는 것이었다. 강연과 질의응답이 끝나자 사회자 Abraham Udovitch 교수가 “중동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일도 많았지 않겠느냐”는 코멘트와 함께 세미나의 종료를 선언했다. 루이스는 박수 속에서도 머리를 저으며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무리 대중적으로, 정치적으로 각광받아도 그의 일반론은 이제 더 이상 학계에서 지배적인 설이 되지 못한다.

